

고객 중심 100년 은행 지향...지역경제 불 밝힌다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송중욱 회장

2018년 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은행이 50년 역사를 뛰어넘는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19년 기해년의 문을 활짝 열었다.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경제를 밝히기 위한 광주은행의 행보가 기대된다.

광주은행



지방은행 최초 PPR시스템 시행 종이문서 없애 고객 불편 최소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오픈 채용인원 70% 지역인재 선발 장학사업·사회적약자 지원 늘려 공부방·쉼터 운영 지역민에 가까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

지난1968년 11월 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직원 57명으로 출발한 광주은행은 창립 50년 만에 자기자본 1조7000억원(자본금 2566억원), 총자산 27조원(영업자산 40조원), 1600여 임직원이 함께하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 성장했다.

2018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414억원, BIS자기자본비율 16.31%, 고정이자여신 0.51%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초 체력이 튼튼한 초우량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자산의 질적 성장과 수도권 영업망의 안정화라는 Two-Track 영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디지털 역량 강화로 비대면채널 영업이 확대되는 등 선제적인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나온 성과로 향후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의 성장

갈수록 산업간 경계는 모호해지고, 쏟아지는 신개념 서비스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이처럼 경쟁해야 할 시장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을 대비한 광주은행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했다. 이로인해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면서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은행직원들의 불편과 업무정리 소요시간도 줄였다.

어플(APP) 설치 없이 포털사이트에서 '광주은행'을 검색해 접속하기만 해도 쉽고 빠르게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웹뱅킹'을 선보이기도 했다.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각종 공공기관 발급서류를 전자적 서류제출방식으로 제출하고, 각종 약정서, 신청서 서식 등을 전자서식 형태로 고객에게 발송해 모바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상담지원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지난 12월부터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을 오픈해 간편하고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판단 및 설계로 대출상담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앞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해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우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

광주은행은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성원해준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상생 경영을 펼쳤다.

지역인재들을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우리 지역에 할당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서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특별출연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었다.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앞장섰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서민 지원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사회공헌 활동

광주은행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주관한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지난해 6.7.8월 세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방은행 브랜드 빅데이터 1540만여개를 토대로 국내 6개 지방은행에 대한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결과에서 광주은행은 사회공헌과 커뮤니티지수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고객중심경영,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광주은행의 핵심 경영 메시지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부터 소년소녀·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1600여 임직원들은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5년 5월 1호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 창립기념일에 50호점을 발표한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회 공헌 사업은 지역 아동들의 꿈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연탄배달을 하고, 김장을 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은행 본점 1층 KJ원더랜드에는 찾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KJ원더랜드' 전시가 한창이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KJ원더랜드는 추운 겨울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심터와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8년 여름에는 광주·전남 전역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 제공했고, 지난 24일부터는 한겨울쉼터를 개방해 휴대용 핫팩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안식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스포츠 활성화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展>'과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의 서울전 협찬 등 광주은행은 한국 전통의 맛과 정서를 지역민에게 자주 선보이며 옛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100년 은행의 신화를 이루기 위한 3대 대약으로 첫째 도전과 혁신, 둘째 진정성이 묻어나는 고객 중심 경영, 셋째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 지역민과의 상생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및 중서민 전문은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동반자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100년 은행을 지향하는 광주은행의 신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본점 전경.



송중욱 행장이 지난해 말 개관한 KJ원더랜드를 방문한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0호점.

한전선로 걱정없는 태양발전소 분양
건축물 150평+태양광 100Kw 초특가 2억5천만원
 (한전불입금 별도)

- 1 강진군 대구면 12개소
- 2 보성군 노동면 23개소
- 3 보성군 득량면 ① 12개소
- 4 보성군 득량면 ② 8개소
- 5 보성군 보성읍 15개소
- 6 영광군 법성면 4개소

곤충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 땅+건물+태양발전+1층 임대비=년에 13개월 수입
- 농업회사법인 미래식량정원(주) 10년 임대수익 보장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수익	년 3,000만원~3,500만원
임대수익	년 250만원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